

불별더위에 나흘새 온열질환자 285명

올해 들어 열사병 등 온열질환을 호소한 환자가 551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별더위와 열대야가 시작된 최근 나흘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4명이 목숨을 잃었다.

17일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감시 결과에 따르면 5월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온열환자 신고건수는 총 551건이다. 이 가운데 전국에 폭염경보가 다수 발령된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전체 온열환자의 52%인 285명이 응급의료기관(519곳)을 찾았다.

최근 나흘새 숨진 온열질환 환자도 전체 사망자 4명 중 2명으로 절반에 달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자료를 분석해온 온열질환 환자 10명 가운데 8명(80%)은 5077명·78%이 7월 중순께 급격히 증가하

5월20일부터 온열질환 신고건수 551건 폭염 때 실외활동 자제 및 수분섭취해야

기 시작해 8월 중순까지(7월11일~8월20일) 집중됐다.

10명 중 4명(2588명·40%)은 낮 시간대(낮 12~오후 5시) 논밭·작업현장 등 실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폭염특보 시 낮시간대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전했다. 낮시간대를 전후한 아침·저녁(오전 9시~낮 12시, 오후 5시~9시)에도 실외에서 2162명(39%)이 온열질환을 호소했다.

집안이나 작업장 등 실내에서 발생한 경우도 1291명(20%)에 달한 만큼 폭염과 열대야가 예보된 경우 건강수칙을 지키는 게 좋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1464명

(22.5%)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076명(16.6%), 60대 986명(14.4%), 70대 744명(11.4%) 등 순이었다.

질병관리본부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불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폭염 때는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며 지리온,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한다.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위험시간대(낮 12시~오후 5시) 활동을 줄이고,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음주나 다량의 카페인 음료를 마신 후 작업하면 위험하고 만성질환(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투석 등)이 있는 사람은 폭염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풀고 시원한 너무 차갑지 않은 물수건으로 닦아 체온을 내리고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환자에게 수분보충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하며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뉴스

하와이 화산 폭발로 바위 보트 덮쳐 23명 부상

미 하와이의 빅아일랜드에서 16일(현지시간) 화산 폭발로 인한 용암에 녹은 바위들이 인근 해역을 운항하던 관광 보트의 지붕 위로 떨어져 23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다.

20대 여성 1명은 다리뼈가 부러지는 증상을 입었다고 하와이 카운티 소방국은 말했다. 또 다른 부상자 3명도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으나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화상이나 찰과상과 같은 겉치레만 입었을 뿐이다.

이들은 지난 두 달 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 분화를 계속하고 있는 화산 폭발로 용암이 바다로 흘러드는 모습을 보기 위해 관광 보트에 타고 있었다. 하와이 소방국은 날아온 바위가 관광 보트 지붕 위로 떨어져 큰 구멍을 냈다고 전했다.

관광 보트의 선주 겸 선장인 세인 터핀은 이처럼 많은 바위들이 날아오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당시 자신의 보트가 해안으로부터 약 450m 떨어진 해역을 운항 중이었으며 큰 폭발이 관측되지 않아 용암으로부터 약 230m 떨어진 곳까지 접근했다며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며 바위가 보트를 덮었다고 덧붙였다.

1983년부터 빅아일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터핀은 오랜 세월 용암을 보기 위한 보트 관광을 운영해 왔지만 이날 폭발은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을 느낄 새도 없이 폭발과 동시에 바위들이 보트로 날아들었다고 말했다.

日 폭우로 LP가스통 2400개 바다로 유실

최근 서일본 지역을 강타한 폭우로 오카야마(岡山)현과 에히메(愛媛)현에서 인화성 LP가스통 약 2400개가 하천 및 바다로 유실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해상보안부 등이 대부분을 회수했지만 아직 200여개의 가스통은 수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가스통 유실에 따른 인화 및 폭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가스통이 토사붕괴 현장에 매몰돼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주의를 당부했다.

오카야마, 에히메 지역의 LP가스협회에 따르면, 오카야마현에서는 다카하시(高梁)강이 범람하면서 약 1400개의 가스통이 유실됐다. 에히메현에서는 오즈(大洲)시 히지(肥)강이 범람해 약 100개의 가스통이 유실됐다.

해상보안본부는 지난 16일 현재 하구와 해상 수색을 통해 유실된 2400여개 가스통 중 2200여개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200여개가 아직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해상보안본부는 해상에서 가스통이 선박과 충돌하면 폭발하거나 선박이 파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더해 토사붕괴 현장에 매몰된 가스통의 경우, 중장비를 이용해 복구작업을 벌일 때 가스통을 잘못 건드려 파손시킬 수도 있다. 현재까지 폭우 피해에 위치한 가옥 15세 부지에 가스통이 매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넓은 범위에서 토사붕괴가 일어난 히로시마(広島)현에서는 더 많은 가스통이 매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의를 당부했다.

미, 러시아 스파이로 활동 29살 여성 체포

미국 워싱턴 연방 검찰이 16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비밀 스파이로 활동한 29살의 여성 마리아 버티나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버티나가 총기소지권과 관련한 연조를 통해 미국 유력 관리들 및 정치단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왔다는 것이다.

버티나의 체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지 수시간만에, 또 로버트 무러 특별검사가 러시아 정보 관계자 12명을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해킹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고발한 지 며칠 만에 이뤄졌다.

무러 특검은 버티나를 고발하지는 않았지만 법원 서류들에 따르면 버티나는 2016년 대선 당시 미총기협회(NRA) 및 정치인들과 접촉해 러시아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서류는 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버티나와 함께 일한 한 미국인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NRA를 통해 크렘린과 미국 정당의 핵심 관계자들 사이에 사적인 연락 라인을 구축하는데 관계했다고 밝혔다.

서류는 미국 정당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내용들을 보면 공화당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인 버티나는 러시아 정부를 위한 미등록 에이전트로 활동하며 음모를 꾸민 혐의로 고발됐다. 워싱턴 법원의 연방 판사는 18일 버티나에 대한 첫 청문이 이뤄질 때까지 버티나를 체포하도록 명령했다고 법무부와 워싱턴 검찰의 제시 류 검사는 말했다.

‘환자 진료비 예탁금 횡령 의혹’ 자체 감사 전남대학교병원

전남대병원 진료비 예탁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병원도 자체 감사에 나섰다.

17일 전남대병원에서 환자들의 입원비 등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진료비 예탁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진료비 예탁금은 환자가 치료비용을 미리 납부한 뒤 차액이 발생할 경우 돌려 받는 금액이다.

감사팀은 진료비 예탁금 내역과 실제 집행내역이 맞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회계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경찰 수사의뢰까지 계획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진료비 예탁금 횡령 의혹이 제기돼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횡령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감사 결과 문제가 발견될 경우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광주 동부경찰도 전남대병원 진료비 예탁금 횡령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병원 측이 환자가 납부한 진료비 예탁금 차액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회계처리하지 않고 따로 관리했던 것으로 보고 계좌 등을 추적중이다.

이윤규 기자



더위를 즐겨라 서울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광화문 광장 분수에서 어린이들이 더위를 식히며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전남 119폭염구급대 올해 출동 33건...지난해 比 2배 늘어

전남도소방본부가 연일 지속되는 35도 안팎의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119폭염구급대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17일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온열질환자 출동 건수가 33건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배나 늘었다.

성별로는 남자 20명(60.6%), 여자 13명(39.4%)이고,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12명(38%)으로 가장 많고, 50대가 4명(9.4%)으로 뒤를 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18명(55%)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장소별로는 실외 작업장 및 도로 등이 9명(28%), 논·밭이 6명(19%)였다.

실제로 지난 14일 함평 학교면에서 발일을 하던 82세 남성이 고열증세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처럼 고령자의 경우 농사일 등 야외 신체활동 시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남도소방본부는 지난 5월부터 모든 구급차에 얼음조끼, 얼음팩, 생리식염수 등 구급장비를 비치한 폭염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소방펌프차 120대에도 온열질환자를 위한 응급처치 물품을 비치하고 있다.

또 119종합상황실에서는 온열질환자에 대한 구급처치의사의 의료 지도와 대처요령 안내 등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군 및 각

보건의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폭염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온열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온도가 높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되 카페인 음료나 주류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홍보하고 있다.

또 밀폐된 공간을 피하고 시원한 장소를 찾아 더위를 식히야 하며, 특히 노약자들은 주변 온도에 적응하는 신체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이는요...
자제치료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운영하지 않으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보건복지부

[서울 129]

h-well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